



동인천역 도시재생 프로젝트



서울숲

Landscape Review

조경정보 vol.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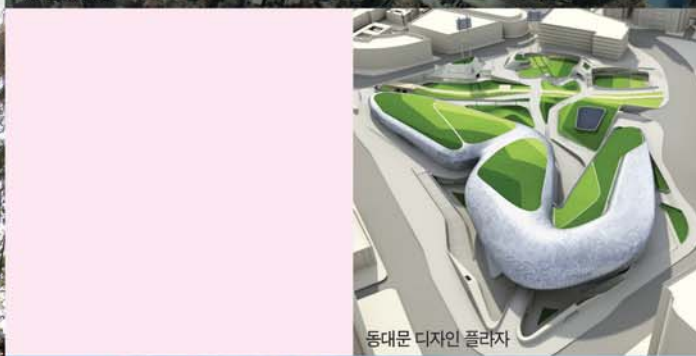
신월문화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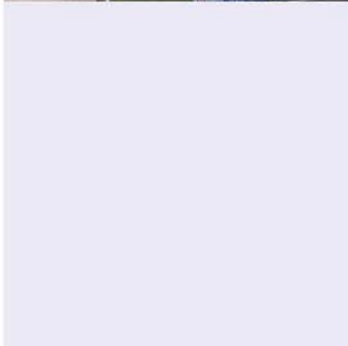
북서울꿈의숲



광주 푸른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월드컵공원

Contents

도시재생과 조경

- 02 도시재생과 조경
- 04 도시를 재생시키는 공원과 프로젝트 사례
- 06 조경을 통한 도시재생 전략과 과제
- 07 Issue & News



Guggenheim Museum, Spain

도시재생과 조경

Urban Regeneration and Landscape Architecture

김 영 대 Kim, Young Dae · 대구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재생이 곧 되살리는 일이라면,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도시를 되살리려는 실천적 노력이다. 생물처럼 도시도 성장하고 변화한다지만, 도시문명의 흥망성쇠를 제법 알면서도 정작 현대 도시의 쇠락에는 둔감한 편이다. 이 시대 도시는 무한경쟁에 들어섰다. 국가나 지역이라는 보호막도 사라지고 세계무대에 노출되었다. 게다가 도시민은 세계의 앞선 멋진 도시이미지에 경탄하고는 자기도시의 모습에 실망한다. 도시마다 경제력은 물론 여러 능력과 이해관계, 가능성 등 속사정은 하나같이 달라서, 세상에 꼭 같은 도시가 없듯이, 그 흥망성쇠의 결과는 결코 간단히 파악하기는 쉽지않다. 마치 생물체마다 번고의 이유가 제각각인 것처럼. 그러나 도시마다 성장동력을 필두로 해서 각종 복잡다단한 도시력을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회생시키려는 노력은 절절하다. 도시재생은 크게 보면 신구도시 사이의 불균형을 막고, 새로이 도시경쟁력을 갖추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창조적인 미래도시를 구현하려는 노력이다.



HafenCity, Germany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은 도심부 쇠퇴현상을 방지하여 상대적으로 무분별한 외부확산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도심에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하고 재활성화시키는 일에서 출발한다. 특히 쇠락해진 도심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주형태가 변모하는 현상에 민감하여 도시기능을 개선시키고 생활편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도시재생의 효과의의는 비교적 큰 변화, 즉 제도와 예산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재생의 성과가 그대로 지역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더하여 관광개발, 도시마케팅, 문화상품화같은 매력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단한 사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자칫 현재의 지역특성, 재생역량, 잠재력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곁길기가 되기 십상이다. 도시재개발이 수술 즉 외과적 치료법이라면, 도시재생은 복용 즉 내과적 한방요법이다.

돌이켜보면, 1950년대 미국에서 성행했던 도시재개발방식에 이어서,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도시의 구조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며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치유하는 도시재생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즉 도시재생은 사회, 교육, 복지, 문화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도시경제회복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도시부흥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되었다. 본격적인 것은 1980년대 영국의 도시재생 보조금제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일본 도시재생 정책은 룩본기힐스와 같은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고, 스페인의 빌바오는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미국의 커뮤니티운동, 일본의 마을만들기운동, 영국의 근린지역재생운동, 그리고 한국의 도시만들기 등 실천적 사업과 연계되고 있다. 이쯤되면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확장, 기존도시에 새로운 기능도입 등까지 다루어 마침내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동안 도시재생관련 연



Roppongi Hills, Japan

구와 개발이 추구되어왔으니, 이제 도시재생관련법이 입법될 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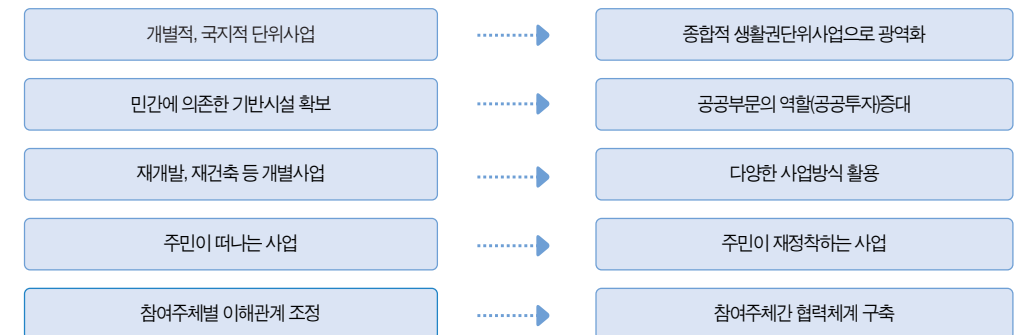
도시재생의 유형에는 복합개발, 보행자 전용지구 조성, 도심 오픈스페이스 혹은 테마공원 조성, 도심형 주거공간 확보, 역사문화자원의 재활용, 근대 산업유산의 재활용, 랜드마크 개발, 이전적지 개발,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 등이 있다. 더하여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환경개선 이외에도 공동체보전과 생계터전 유지와 같은 사회적 목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정체성 유지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히 도시재생의 관건은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하고 수요공급논리에 따라 환경재생의 중심이 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당위성 확보를 통하여 재생사업의 타당성을 갖추는 일이며, 도심활성화기획단과 같은 민간-공공중심의 주체에 따라 선도화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 시대 부각되는 패러다임으로서, 인간정주환경 재구축에 있어서 저탄소녹색성장의 과제는 당연히 구현되어야 한다. 이 또

한 조경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는 점이다.

도시재생작업에 있어서 조경과 도시설계는 함께 도시기반을 점검하여 그 쇠락해진 생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산업경제적 기반을 다듬고, 도시의 공간과 형태를 규정하는 새로운 틀 속에서 서로 다른 것과 새로운 것을 품고 만나는 관계를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도시환경을 소생시키는 일을 한다. 즉 물리적 기반 자체를 거의 받아들이면서도 (물론 사회·경제·문화적 기반은 얼마든지 새로운 구상으로 접목된다) 새로운 컨텍스트에 따라 그 공간형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환경요소를 다듬는 일이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조경의 역할은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입장에서 출발한다. 생태적 기반의 재생, 문화환경의 재생, 그리고 지역경관의 재생 등으로 이어진다. 즉 조경적 접근은 도시재생 그 자체를 보다 포괄적이며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 목표도시 구역을 다시 "숨쉬게" 한다. 그 윤곽선을 조정하고 경관의 질을 높인다. 또한 여러 분야의 참여와 분담의 과정에서 전체를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마스터역할이 가능한 것이다. gusto@korea.kr



Curitiba, Brasil



도시재생방식의 전환방향 자료_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를 재생시키는 공원화 프로젝트 사례

기계적 질서와 규칙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던 시대가 문을 닫고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사회는 문화라는 대체요소와 환경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공공의 안전성 확보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던 물공장이 시민들의 쉼터로 다시 태어난 선유도공원, 거기에 생태라는 시대적 정신까지 갖춘 신월정수장 등을 비롯하여 철도폐선용지, 공장부지, 군부대, 학교 등은 녹색의 거점으로서 본래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만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던 도시의 시설들에게 인간의 삶의 질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녹색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조경이 만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대정신이 조경으로 구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Gas Works Park

미국 시애틀의 개스웍스파크는 도시 중심부에 있던 정유공장을 이전하면서 훌륭스럽게 남은 공장 건물, 원유처리 타워, 가스 파이프 등을 다듬어 새롭게 조성한 곳이다. 공장시설 중 지나치게 혐오스럽고 또 안전도가 의심스러운 것들을 철거하고, 대신 당시의 정유처리 과정을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주요시설은 남긴 채 공원화했다.



Landesgartenschau Neu-Ulm 2008

도나우강에 인접한 부지인 뉴울름에서는 철도구간 복개를 통해 18ha에 달하는 면적에 '미래의 주거생활에 대한 비전제시'라는 모토로 2008년 정원박람회(지방정원박람회 LAGA)를 개최하였고, 이후 박람회 부지는 공원화 녹지, 주거지로 개발되었다. Wiley, Vorfeld, Glacis 세 장소를 연결하기 위해 4개의 다리를 조성하고 도나우강과 남쪽 호수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달하는 녹지축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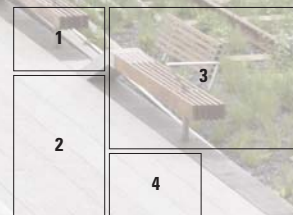
Landesgartenschau-Bingen 2008

빙겐에서는 라인강변에 위치한 폐기된 항구시설을 정비하고 고급 전원 주택단지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2009년 정원엑스포(지방정원박람회 LAGA)를 개최하였다.



High Line Project

맨해튼의 녹슨 고가철로와 주변부의 공원화프로젝트로서, 시민 단체와 개발자간의 긴 대립 끝에 보존이 결정되어 재사용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을 신설하고 새롭게 변화했다. 버려졌던 인프라스트럭처의 재이용을 통한 도시재생사례이자 산업부지 재이용에 대한 선례 및 여가와 문화공원이 새로운 경제력 창출에 기여함을 보여준 프로젝트로 꼽힌다.



- 1. Westpark Bochum
- 2. Duisburg-Nord Landscape Park
- 3. Millruins Park
- 4. Promenade Plantee



Prags Boulevard

오래된 산업지역들과 대형 아파트 빌딩 사이의 매우 노후되었던 프라그스 가로는 코펜하겐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서 특별한 장소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새로운 도시 기반시설로 조성되었다.



Tide Point

오래된 산업부지를 불티모어 첨단 항구의 중심지로 변화시킨 사례로 비누공장이었던 타이드 포인트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용도로 활용되면서, 수변산책로의 개방을 통해 새로운 도시경관을 연출하게 되었다.

조경을 통한 도시재생 전략과 과제

조 세 환 Cho, Se Hwan · (사)한국조경학회, 한양대학교 도시설계·조경학과 교수

국토해양부는 미래 중점 R&D 전략과제의 하나로 2007년 11월에 총 연구비 1,400억원에 7개년 계획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추진단(도시재생사업단)과 공모에 의한 학술연구단을 출범시켰다.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국가적 도시재생전략, 도시마케팅, 정책/제도, 주민참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모델, 도시안전, 성능/복원 그리고 입체/복합개발이라는 8개의 핵심 언어로 되어 있다.

도시재생은 20세기 산업사회의 도시 이상urban ideal인 도시를 넘어 21세기 지식정보·창조사회의 새로운 도시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도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도시가 성숙기에 접어들수록 신생이라는 개념의 도시개발보다는 재생이라는 개념의 도시정비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맥락에서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의 충족,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수립이 요구되고, 다양한 기술이 융합화된 도시재생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동시대의 국토시스템혁신, 고부가가치 산업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맥락에서 필요하다. 더구나,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제고하고, 도시브랜드를 형성하여 세계도시적 맥락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일은 이미 선진제국의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다.

2009년 1월에 있었던 국토해양부의 3차년도 도시재생사업단 워크샵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성능/환경 복원기술 개발 등 조경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거기에는 도시재생 성과지표 절차 및 지표개발 항목에서 '공동조경'과 '녹지공간면적' 등이 각각 나타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조경분야에 관한 사항으로는 도시재생에 있어 '녹지공간면적'만이 지표로 들어가 있는 셈이다. 이것은 매우 후진적 생각이고 동시에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의 가장 근본적 화두 중의 한 가지는 자연과 도시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에 에벤저 하워드Ebenezer Howard에 의해 주장된 정원도시garden city이상에 의해 신도시가 출현한 근본적 이유는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와 또 그 외연적 확산에 의한 자연의 결핍에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시에 필요한 자연의 양적 지표로서 '녹지공간면적' 지표의 타당성은 필요조건으로서 인정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도시재생은 단순히 도시 자연의 회복 및 도입 차원을 넘어 도시와 자연의 융합에 의한 21세기 지식정보·창조사회의 새로운 도시의 문화로서 창출하는 전략적 목표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도시 내의 녹지확보라

는, 단순한 양적 차원을 넘어 도시와 공원·녹지의 혼성과 융합에 의해 공원도시park city로서 도시의 경제, 사회, 환경, 심미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경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전략과 정책, 제도, 기술 등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도시의 각종 아스콘 및 콘크리트 인공관을 자연의 생태관으로 전환하는 사업, 둘째, 전환된 생태관을 레저, 예술, 웰빙, 주거, 업무 등과 융합된 문화관(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 셋째, 도로, 교량 등 각종 도시 인프라를 생태와 예술, 경험을 수반하는 경관 인프라로 전환하는 사업, 넷째, 자연과 생태, 주거, 상업, 업무 등의 토지이용을 혼성화하여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 다섯째, 도시의 각종 이전지지의 용·복합 공원화 사업, 여섯째 도시내 각종 워터프론트의 생태회복 및 공원화 사업, 일곱째, 기존 도시의 대공원을 도시와 역동적으로 소통하는 도시문화관으로 전환하는 사업, 여덟째, 도시, 조경, 건축, 토목 등 관련 전문분야가 혼성적으로 협업하고, 가치계획화하는 전략 구축 사업 등이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조경적 관점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chosh3@hanyang.ac.kr



Issues & news

200909 Landscape Review

조경문화·녹색문화 라센트 www.lafent.com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발간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포함된 보는 둔치보다 낮은 저수역에만 설치되고, 주로 홍수 예방이 가능한 기동보수문을 설치해 수위조절이 가능한 보로 만들어준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최종 보고서를 8월 24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금년 6월 8일에 사업의 추진방향, 주요 사업내용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발표된 바 있다. 금년 최종 보고서는 마스터플랜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 및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업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사)한국조경사회 주최 제1회 경관세미나

(사)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한 '제1회 경관세미나'가 '경관계획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지난 9월 22일(화)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현찬 연구위원(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 박수욱 도시디자인팀장(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도시디자인 차별화', 변재상 교수(대구대학 환경조경과)의 '과천시 경관계획', 김경모 대리(한국토지공사 조경사업팀)의 '통합기호경관계획 수립 매뉴얼' 등이 발표되었다.

서울시 학교운동장, 천연잔디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노원구 대진여고 등 8개 학교 마다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전환하는 공사를 실시한다. 천연잔디운동장 조성 내용은 잔디 식재 16,568㎡와 잔디운동장 외곽에 트랙이나 다목적운동장을 함께 조성하여 과격한 운동 장소를 분산하고, 운동장 지하에는 잔디관리와 빗물재활용을 위해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이다. 특히, 잔디식재지반은 약식 다층구조(USGA 기준)으로 골프장의 그린에 적용하는 공법을 도입함으로써 답압에 강하고 관리도 용이하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대구중심축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대구는 대구의 경관 중심축의 하나인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의 추진에 이어 달구벌대로와 서대구로에 대하여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디자인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디자인 관련업체, 기술용역업체, 대학연구소 및 일반인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실시하며, 11월 5~6일 양일간 오후 5시까지 대구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4층)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녹색성장과 조경의 역할' 전략심포지엄

(사)한국조경학회에서는 오는 10월 21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녹색성장과 조경의 역할'을 주제로 제2차 전략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발표주제는 기후온난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 및

적용방향이며, 그 외에 녹색디자인 사례발표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저지들도 소개될 예정이다.

(사)한국조경학회·순천시, 업무협약체결

지난 8월 27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조세환)와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의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MOU 체결식이 있었다.

협약서에는 (사)한국조경학회와 순천시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공동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한편, 학술, 기술, 정책 등의 정보공유를 통해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도시의 미래모습을 꾸미는 새로운 시도로써 정원박람회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기능하다면 첫 행사라도 전세계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조경분야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협약체결의 의미를 전했다.

참여를 기다립니다

2009년 11월 10일 발행될 조경정보 제4호의 주제는 '공공디자인'입니다. 관련 정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라센트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2009년 10월 15일까지 보내실 곳 lafent@lafent.com 문의 031-955-6042~4 www.lafent.com
---	--

'2009 인천 세계조경가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개최



(사)한국조경학회와 인천광역시 공공으로 주최하고, 국토해양부와 산림청의 후원으로 도시와 조경의 혼성과 융합·미래를 향한 전략과 대응 이란 주제에 펼쳐진 '2009 인천 세계조경가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이하 IALA-APR 2009)'가 9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었다. 특히, 총회의 주요행사로 진행된 녹색성장관련 조경적 공무원 회의는 참여자들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기도했다. 본 행사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김천시, 순천시 등 4대 자치시의 주제발표를 비롯한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실천전략들이 쏟아져 나왔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김형국 위원장은 기존연설을 통해 "조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차이를 있어야 하며, 마음의 따뜻함을 기본이념으로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사례발표로 서울시인승 일 푸른도시국장은 "2000년까지 공원녹지비율을 서울시 전체면적 대비 1/3 수준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라 전했다. 이어서 김천시에



HOT Issues & News

이달의 인기 검색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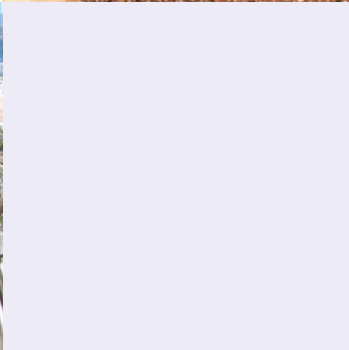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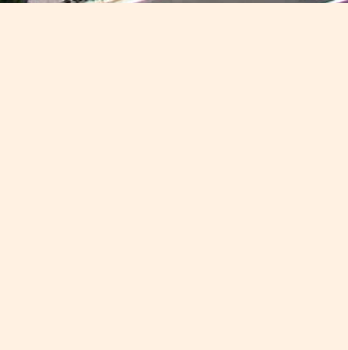
- ▶ 남산, 도시공원 최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10년 녹색복지공간사업' 75억 공모
- 태화강 중류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행
- IT 집약형 옥상공원 조성한다
- 창계천 하류, 생태습지원 조성
- 건축디자인 11개 지자체 사업 선정
- 지하철역에 미니농원 가꾼다
- 친환경 건축물 디자인 전시회
- 서울시 무분별한 경관조명 규제
- 제9회 한·일 조경인 추경대회
- 디지털 조경아카데미

조경전문 포털사이트 www.lafent.com에 접속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뉴스 및 행사, 관련정보를 상세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 조세환
편집위원장 | 이상석
편집위원 | 김태경, 진양고, 김도경, 이윤희, 조경진, 최신현
간사 | 임수정, 백정희
2009년 9월 20일 발행 | 발행처 | (사)한국조경학회



- 1 MFO Park, Swiss
- 2 Curitiba, Brasil
- 3 Sinagawa, Japan
- 4 Former BP Public Parkland, Australia
- 5 Potsdamer Platz, Germany
- 6 High Line Project, USA
- 7 Guggenheim Museum, Spain
- 8 La villette, France
- 9 Promenade Plantee, France
- IBA Emshere Park, Germany




SYNWHA CONSULTING

(주) 신화컨설팅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0-20
ICON빌딩 4, 5층
Tel. 02-545-5903
Fax. 02-544-0879
E-mail. synwha@chol.com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_ (02)565-2055 | FAX _ (02)565-2056 | e-mail_kila96@chol.com